

지난 1학기 캡스톤디자인 챔피언스 리그에서 대상을 수상한 '요게미들'팀의 팀장을 만나 그들이 막걸리 요거트를 만들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들어본다.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1인 가구의 음식, 심리, 주거 등을 들여다본다.

대학주보

전정대 학생회장, 제휴 수익금 투명성 논란으로 '사퇴' 결산안 공개되지 않는 제휴 수익금 관련 명문화 필요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이채형 기자 leechaehyeong0107@khu.ac.kr

전자정보대학(전정대) 이유찬(전자공학 2023) 학생회장이 외부 업체 제휴 지원금 등의 공적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해 대표자 권한 제한 징계를 받고 끝내 사퇴했다. 제휴 수익금의 투명한 결산을 두고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구성원 불신도 커지고 있다. 우리신문은 업체 제휴와 지원금 수령 절차, 관련 재정운용세

칙상 문제점, 앞으로의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봤다.

제휴 수익금 사적 사용한 학생회장 감사위원회 징계 후 '사퇴' 결정

지난달 8일 열린 제1차 중앙재정 운용위원회의 재정부담운용심사 끝에 발족한 감사위원회는 이 전 회장의 횡령 금액을 ▲외부업체 제휴 수익금 ▲경희랜드 수익금 ▲전정대 풋살대회 참가비를 포함한 총 3,871,580원으로 판단했다. 이중 외부업체 제휴 수익금은 '강남스마일

안과'와 '유비온'에서 각 3,500,000원, 483,500원을 지원받은 금액이다. 이 씨는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남스마일안과의와 제휴 당시에는 학생회비 계좌가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회비 계좌 개설 이후에도 해당 제휴 지원금은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비온과의 제휴는 계좌 개설 이후에도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전달받았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제휴 지원금 중 행사 지원을 위해 사용된 232,520원을 제외한 금액은 공적 자금을 사

적 보관 및 처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16회에 걸친 전정대 학생회 식사 및 회식에 1,199,340원을 지출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 씨는 총 192점의 벌점으로, 재정운용세칙 제30조 4항에 따라 대표자 권한 제한 처분을 받았으며 재정 전액은 중재위에 몰수 후 추후 결정에 따라 이관된다.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6일 후 이 씨는 전정대 학생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제휴수익금 관련 세칙 없어 단과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

전정대 사례에서 문제가 된 수익금은 제휴 업체 측에서 학생회의 업체 홍보 대행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 11곳의 학생 자치 기구와 제휴를 맺고 있는 'BGN 밝은눈안과' 관계자는 "지원금이 나가는 이유는 홍보 대행의 목적"이라며 "단과대 학생회 측에서 저희 안과의와 제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운영 기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협력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드리는 것"이라 설명했다.

2면에 계속 →

중앙박물관 · 경희기록관 누수로 피해...옥상 방수 공사 도중 폭우로 발생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서울】 지난달 중앙도서관 옥상 방수 공사 중 건물 내 빗물 누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현재 피해 복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주 내로 복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빗물 누수는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해 옥상 방수층을 제거한 사이 호우가 발생해 빗물이 건물 내부로 스며든 데 따른 것이다. 지붕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는 방수층은 지난달 22일 제거됐다.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폭우가 쏟아지며, 빗물이 건물 내부로 스며드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앙도서관 4층 복도는 천장 텍스가 찢어 떨어졌고, 비닐과 양동으로 물을 받는 등의 임시 조치가 이뤄졌다. 해당 공간에는 중

앙박물관, 경희기록관, 제4열람실이 위치해 현재 출입 통제 중이다.

건물 내 주요 시설과 자료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박물관 구민우 학예사는 "방수공사를 하면 일부 물이 샐 것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진열장 위에 비닐을 쳐놓은 상태"라며 "중요한 유물은 안전한 곳으로 빼놓아서 누수로 인한 유물의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박물관 전시실에는 암사동 출토 빗살무늬토기, 미륵불좌상, 연꽃무늬 수막새 등 국보급 문화재도 전시돼 있다.

경희기록관 남기원 차장 역시 "조금이라도 물이 샐 것을 방지해 미리 중요 기록물은 수장고에 보관해서 누수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며 "다만 사무공간 쪽은 비가 섰다"고 말했다.

중앙도서관 측도 열람실 피해는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4층 복도는 천장 텍스가 찢어 떨어졌고, 비닐과 양동으로 물을 받는 등의 임시 조치가 이뤄졌다.

(사진=김유경 기자)

김지영 차장은 "제4열람실에서 누수가 확인됐으나 크게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관 수장고나 서고 쪽에서는 이번 비로 인한 누수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제4열람실에는 지난 4일 기준으로 에어컨 모퉁이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관리팀 김경태 팀장은 "최대한 장마 기간을 피하고 개강에 맞춰 공

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가 최선이었다"며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리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총무관리처 한덕영 처장은 "앞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부서와 자주 만나며 대면으로 소통하고, 현장에도 수시로 나가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누수 피해 복구 논의가 이뤄

지고 있다. 한 처장은 "도서관 4층 천장 텍스가 완전히 마른 후 복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 밝혔다. 누수 피해 발단이 됐던 옥상 방수 공사는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부 시설을 준비해 시험 기간에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 종합

2026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 22.8:1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2026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이 최종 22.8:1로 마감됐다. 서울캠은 25.2:1, 국제캠은 20.1: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 학년도 서울캠은 26.9:1 국제캠은 20.4:1로, 총 23.9: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전형은 지난 학년도와 동일하게 '논술우수자' 전형이다. 총 474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가운데, 총 31,575명의 학

생이 지원했다. 서울캠에선 한의예과(인문)가 520:1, 국제캠에선 체육학과가 133:1로 모집 단위 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논술우수자 전형과 지역학생부교과 전형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능 최저학력기준에서 한국사 5등급 이내의 성적을 요구했지만, 올해부터 한국사 성적은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올해부터 모든 수시 모집 전형에 학교폭력 사실을 반영한다. 지난해의 경우 실기우수자전형(체육)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됐을 때, 위원회

심의 감점이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 모든 전형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이 기재된 경우, 각 호수(제1~9호)에 따라 해당 항목 전형 총점(만점)에서 감점 처리한다. 모집 단위 또한 개편됐다. 기계공학과와 기계공학부 체제로 선발해 전공 선택 시 기계공학전공, 지능로봇공학전공, 항공우주모빌리티전공 중 학생 본인이 입학 후 선택할 수 있다. 경영학과와 회계학과는 경영회계계열로 일괄 선발해 입학 후 학생이 자신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체험과 교류로 물든 동아리 박람회 '마인쿠래프트'

【서울】지난 3일부터 이틀간 청운관 앞마당에서 동아리 박람회 '마인쿠래프트'가 열렸다. 총 35개 동아리가 참여해 스탬프판 이벤트와 다양한 체험형 부스로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동아리 박람회는 양 캠퍼스 교류 행사인 '설교교류전'과 연계돼 참가자들이 교류전에 참가해도 동아리 박람회 추가 스탬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이서현, 이수연 기자)

1면에서 계속 →

지원금은 입금처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학생 자치 기구 측에서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현행 세칙상으로는, 학생회비와 달리 제휴 수익금에 대한 결산 의무는 없다. 국제캠 재정운용세칙 제5조에는 '본회의 재정은 자치회비, 학생회비, 특수목적비, 기타 수익금으로 분류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제휴 수익금에 대한 정의와 사용 목적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전 회장이 제휴 수익금을 개인 계좌에서 사용했어도, 이를 알 수 있는 체계가 없었던 이유다.

현재까지 통일된 지침의 부재로 각 단과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를 운용해 왔다. 대표적으로 공과대학 학생회는 제휴 수익금을 학생회비 계좌로 이관시키는 대신 별도의 모임통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장호재(건축학 2018) 학생회장은 "학생회비와 동일하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어서 오히려 혼용하는 것이 더 위험해 보였

다"며 "OT 명찰 구매, 안전 지도 용품 등 사용 목적을 승인한 곳에 한정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캠도 마찬가지다. 서울캠 재정운용세칙에서 재원을 다른 제2조에는 '본회의 재정은 교비, 학생회비, 자치회비로 구분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자치회비 외 모든 수익금을 법인 명의 학생회비 계좌에 포함하고 있는 문과대학 학생회의 양우혁(응용영어통번역학 2021) 회장은 "엄밀히 따지면 제휴 수익금과 학생회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재정 운용 차원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최근 대부분 단과대 학생회는 이러한 제휴 수익금을 학생회비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제1차 중앙재정운용위원회 재정부담운용심사 회의록에 따르면 총 학생회를 포함해 여러 단과대(예대, 외대, 생대, 응대, 국제대, 공대, 소응대) 학생회 대표자들은 지원금의 성

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이 금액을 학생회 내부 발전지원금이 아닌 공적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지원금 액수, 비밀유지조항 동종 업계 간 경쟁 방지 목적

제휴 수익금 관리가 베일에 둘러싸인 또 다른 원인은 '비밀 유지 조항'이다. 이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계약 시 지원금 액수에 대한 발설을 막기 위해 넣는 조항이다. BGN 밝은눈안과 제휴 담당자는 "어느 기업이나 계약을 할 때는 비밀 유지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다"며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개됐을 경우에 회사 정보가 새어 나가, 동종 업계 간 경쟁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비밀유지조항으로 인해 얼마의 수익금을 받았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결산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생긴다. 문과대 학생회 관계자도 "제

휴 업체로부터 받은 지원 금액이나 지원 품목은 업체와의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완전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캠 중감위 설립 논의 이어져 "제휴수익금 관련 규정화 필요"

결국 제휴 수익금 사용과 관련한 세칙을 제정해, 학생회가 벌어들인 수익을 구분 없이 감시하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

문과대 학생회의 경우 관례적으로 제휴를 맺기 전 문과대학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여, 만약 안건이 부결될 시 문과대학 학생회는 해당 업체와 제휴를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비밀유지조항으로 인해 지원금액이나 지원품목은 완전공개를 하지 않지만, 학기 초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문과대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학생회비 계좌의 결산 심의, 의결을 진행한다.

문과대학 관계자는 "해당 결산을 통해 제휴 수익금에 관한 부분을 대표자들이 확인할 수 있고, 이후 문과대학생대표자회의의 심사 공고를 통해 일반 학우들에게도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캠 중운위는 제휴 업체로부터 받은 지원금 결산 제도와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국제캠 총학생회 박병준(국제학 2017) 회장은 "제휴 수익금은 업체와의 계약상 공개 결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비공개 결산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다만 "단순히 감사위를 신설하는 것이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점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총학생회와 중운위는 자치회비 이외 단과대학 학생회비 결산을 각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 중"이라 말했다.

경희대학교 학보사

대학주보

제74기

신입기자 모집

지원자격

양 캠퍼스 재학생, 휴학생, 복학생 (1, 2학년)
학생자치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자

모집부문

취재기자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미디어팀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자, 톨 활용 여부

지원방법

경희대학교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내 지원서 작성
(<https://media.khu.ac.kr/>)
*팝업 허용 시, 지원서 링크 접속이 가능합니다.

모집일정

서류: 9월 8일 ~ 9월 19일
면접: 9월 22일 ~ 9월 24일
*정확한 일정은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활동혜택

장학 선발 기회
활동 증명서 발급
기자 개인 명함 지급
취재비 및 원고료 지급

문의

하시언 편집장 (010-4415-0622)
인스타그램 | @khunews_jubo
메일 | khunews@khu.ac.kr



국내 대학, AI 연구혁신-전문 인재 양성에 올인 학사, 도서관정보 등 적용 범위도 계속 확대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연재-대학 AI 위원회 출범 ① 타 대학 AI 활용 사례

우리학교는 지난 8월 AI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교육·연구·행정 전반에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학 차원의 AI 시스템을 구축해 영역 전반에서 혁신적인 활용을 실현해 가는 것이 목적이다. AI 위원회가 아직 출범 초기 단계인 만큼, 우리신문은 타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고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4회에 걸쳐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모든 학문에 AI 접목 학생 대상 AI 교육도 확대

국내 대학들이 AI 연구 혁신과 전문 인재 양성에 앞다퉀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AI 연구 시설을 자랑하는 서울대 AI 연구

원은 모든 학문 분야에 AI를 접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연구원 산하의 언어·인지 AI 선도·혁신 연구센터는 ▲인문학 연구자를 위한 자연어처리 강좌 ▲인지신경데이터처리 강좌 등 언어 AI 주제별 튜토리얼 강의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의 한국어 말하기·쓰기 능력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I를 기초교육부터 타과 융합까지 아울러 제공하는 것도 대학가의 트렌드다. 연세대는 AI를 특정학과가 아닌 교수설계·융합 교육으로 운영해 다른 전공과 결합한다. 연세대 AI융합과 학원은 공학·인문·사회 등 타 분야와 결합한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성균관대는 'AI·데이터 관련 교과목'을 비전공자의 경우 9학점 이상, 전공자의 경우 18학점 이상 수강해야 학부를 졸업할 수 있다. 이에, AI·데이터 관련 강의 27종류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성균관대에서 'AI 기초와 활용' 강의를 수강한 성균관대 재학생 김서하 씨는 "AI를 둘러싼 법률, 경영 관련 내용도 같

이 학습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경영학 학생인데 AI를 경영과 융합해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대학 행정에서의 AI 사용 편리성과 학습지원 도모

AI 서비스는 대학 행정의 편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습 지원까지 가능하다. 서울대는 지난 8월부터 데이터·AI TF를 신설, 전 교직원 대상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서울대 교직원 은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등 주요 LLM(텍스트 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다른 형태의 데이터도 학습하고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의 서비스를 선택해 개인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지난 3월부터 자연어 기반 AI 챗봇 서비스 '인포미'를 운영하고 있다. 인포미는 LLM 기반 챗봇으로, 대규모 언어 데이터를 학습해 사람처럼 문장을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다. 챗봇의 도입으로 업무 개선이 있었다는 직

원 오세나 씨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의가 크게 줄어 사서들이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 개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포미는 26개의 언어를 지원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구성원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 챗봇으로 학생 편의 개인관심사 분석해 도서 추천도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LikeSNU(빅데이터 기반 지식정보 플랫폼)를 사용해 학생들의 개별 학습 생활 영역에서도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ikeSNU 서비스는 학술 데이터를 통합해 맞춤형 연구 추천과 연구 성과 분석을 제공한다. AI가 개인의 관심사와 학술 빅데이터를 분석해 도서·논문·강의·저널을 추천해 학생들은 개별 학습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다.

LikeSNU 서비스와 관련해 서울대 중앙도서관 오세나 씨는 "언어 모델(sLLM)과 결합해 연구자가 자연어 질의로 최신 연구 동향과 관련 문헌을 대화형 AI로 탐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재학생 김지연 씨는 "이제껏 수강한 과목, 열람한 논문, 대출한 책 등을 기반으로 지식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다"며 "나만의 도서 추천 알고리즘과 독서 로드맵도 구성해준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일부 대학은 다양한 AI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 정해진 스크립트(시나리오)를 출력하는 시나리오 기반 챗봇인 '쿠봇'을 도입한 바 있지만 지속적인 서버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금은 경희특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나 시나리오 기반 챗봇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진 않다.

이에 반해 성균관대는 학사 정보 안내 챗봇인 '킹고(Kingo)봇'을 통해 ▲학사제도 안내 ▲정보광장 GLS(학내 페이지 연결) ▲셔틀버스 위치정보 및 시간 안내 ▲학식당 식단 안내 ▲전화번호 조회 ▲캠퍼스 안내 ▲입학 안내 ▲도서관 정보 안내 ▲기숙사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 AI 성과 교류회서 흥미로운 결과 발표 도움형 AI 에이전트 앱 일 처리 시간 45% 줄여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국제】공과대학 AI위원회의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AI 연구 성과 교류회' 지난 11일 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행사는 ▲행정 ▲연구 ▲교육 ▲윤리 ▲AI 엔지니어링 등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사례가 발표됐다.

첫 연구사례 발표자로 나선 김영훈(산업경영공학) 교수팀은 행정직원의 반복 업무를 줄이기 위한 '도움형 AI 에이전트' 앱을 개발했다. 김 교수는 "행정직원들은 평소 학내 규정 관련 문의에 매번 규정집을 확인하고, 유사한 질문에도 반복적인 답변을 해야 해 피로도가 상당하다"며 "사용자의 질의와 관련된 문서를 빠르게 검색해 규정을 제시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기존 AI 검색 시스템의 상황 이해도가 낮아 발생하던 문



공대 AI위원회의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AI 연구 성과 교류회'가 지난 11일 공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원희재 기자)

제를 보완했다. 지난 8월 진행된 베타 테스트 결과 문의 처리 시간은 평균 45% 감소(일평균 2.2시간 절약), 업무 효율성은 평균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 교수는 "비공식적인 예외 상황에 대한 응답이나 복잡한 질문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논문 작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AI 프로그램 연구

사례도 발표됐다. 백장운(건축공학) 교수는 "논문 한 편을 완성하기까지 평균 3~6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복잡한 데이터 처리와 자료 정리에 소요된다"며 문헌 정리와 자료 생성을 지원하는 AI 프로그램을 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챗지피티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질문 기술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다중

서비스를 단순화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MCP(Model Context Protocol) ▲LLM이 생성한 텍스트에 실시간 정보를 결합해 정확한 답변을 도출하는 정보 생성 모델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등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구현됐다.

또한 임재혁(기계공학) 교수팀은 생성형 AI와 MCP 기술을 접목

해 시각 자료 생성 및 변형 AI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논문에 활용될 시각 요소를 손쉽게 제작하기 위해서다. 임 교수는 "AI를 통해 학생들이 불필요한 자료 정리 과정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본질적인 연구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관점 역시 논의됐다. 김석현(사회기반시스템공학) 교수는 '듀얼 브레인' 개념을 소개하며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듀얼 브레인은 일명 '켄타우로스 모델'이라고도 불리며, 인간과 AI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작업 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주요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 유지 ▲AI를 하나의 주체로 대하고 역할을 부여하기 ▲AI를 무조건 부정하지 않기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과도한 AI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다. 백 교수는 "논문 작성 과정의 상당 부분을 AI에 의존하는 현상이 우려된다"며 "과도한 AI를 활용해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을 저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 종합

제2기숙사 학식 오는 22일 영업 개시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국제】 제2기숙사 학생 식당 운영 업체가 '푸드리스트'로 최종 확정됐다. 영업 시작일은 22일이다. 제2기숙사 측은 과거 발생한 위생 관련 논란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식사 품질 향상, 위생 관리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드리스트는 사조그룹 계열의 급식업체로, 지난 8월 진행된 제2기숙사 식당 운영 업체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최종 낙찰 때 현재 식당 영업 준비를 시작했다. 제2기숙사 행정실 조미희 대리는 "기술능력평가 비중이 높은 만큼 제안서 발표 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이 최종 선정 이유"라고 밝혔다.

제2기숙사는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다양한 식사 인원에 맞는 좌석을 배치하는 등의 변화를 줄 계획이다. 조 대리는 "기존에는 카드 단말기 형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었지만, 새롭게 키오스크를 2대 정도 도입할 것"이라며 "키오스크 결제 형태는 업체와 조율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테이블 배치는 1인 다이닝석, 4

인, 6인, 8인석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셀프 라면 기계가 기존 2대에서 4대로 늘어나고, 수제 샐러드·샌드위치 등 간편식 예약 판매도 이뤄진다.

식당은 지난 9일부터 환경 개선 공사에 돌입했다. ▲벽면 도장 ▲셀프코너 ▲식기류 ▲홀 테이블·의자(10월 예정) ▲조리실 주방 기구 50%가 교체된다. 자율배식대는 신설되고, 직화·볶배기류를 위한 시설도 강화된다.

다만, 이전과 달리 주말에는 식당이 운영되지 않는다. 조 대리는 "최근 5년간 평균 주말 이용 식수가 낮은 것을 고려해 운영 비용을 평일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식사 품질 및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결정된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기존 학생 식당 점장, 조리 실장, 영양사, 조리사 등 주요 직책은 푸드리스트 측에서 채용한다. 조리원은 희망자에 한해 업체 측과 협의를 거쳐 채용된다. 위생 문제와 관련해서 조 대리는 "과거 발생한 식사 품질 및 위생 관련 민원 사항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식사 품질 향상, 위생 관리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업체 '푸드리스트'가 제2기숙사 식당을 운영한다.

(사진=서민주 기자)



우리학교가 세븐일레븐과 산학협력 협약을 맺어 공동 프로젝트,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사진=박 교수 제공)

세븐일레븐과 산학협력 MOU 학생들, AI 추천 알고리즘 도전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서울】 우리학교가 세븐일레븐과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학생들에게는 공동 프로젝트,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회가 제공된다.

세븐일레븐과의 협업은 경영대학 빅데이터응용학과 4학년 전공 과목 '캡스톤디자인'을 통해 운영되며, 박재홍(빅데이터응용학) 교수를 중심으로 12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프로젝트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 면접이 방학 중에 진행됐고, 그 결과 33명의 지원자 중 12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중 한 명인 김지수(경영학 2021) 씨는 "경영학과지만 데이터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와 관련한 실무를 배우고 싶어 지원

하게 됐다"고 말했다. 프로젝트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들의 목표는 AI를 활용한 편의점 물류 개선 및 추천 알고리즘 개발이다. 편의점 가맹점주가 물류 선주문 시 도움을 주는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만들어보는 거다.

박 교수는 "편의점 점주들이 발주할 때 물류가 한정돼 있어 어떤 품목을 발주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며 "고객 물품 선호도 및 매장 간 유사도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AI 기반 무상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사내 회의를 거쳐 전국 점포 점주에게 상용화된다.

박 교수는 "AI 기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빅데이터 제공이 중요하다"며 "타기업

들은 사내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세븐일레븐 측에서 물류 영수증 데이터 등의 자료 제공을 흔쾌히 약속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지난 한 달간 프로젝트 진행에 기초가 되는 알고리즘 관련 강의를 수강했다. 앞으로는 세븐일레븐 DX팀 관계자와 매주 화상회의로 만나며 알고리즘 개발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세븐일레븐은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을 약속했다. 세븐일레븐은 참가 학생 중 뛰어난 역량을 지닌 학생을 인원 제한 없이 선발해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박 교수는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학생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활로’

유엔 세계평화의날 기념 PBF 2025, 19-20일 양일 간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서울】 제44회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Peace BAR Festival (PBF)이 19일과 20일, 우리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다. 올해는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활로’라는 주제로 15일부터 20일까지는 양캠퍼스에서 부대 행사도 이어진다.

PBF는 1981년 유엔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기념해 198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국제학술회의와 다양한 행사를 결합한 축제다.

이번 PBF 주제에 대해 미래문명원 김원수 원장은 “지구는 전체 우주로 보면 더 작은 존재인데, 우주

를 잊고 마치 우리만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 중심주의로 여러 폐해가 발생한다”며 “세계시민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생각 또한 여전히 인간 중심 사고이기에 이제는 자연과 우주까지 범위를 넓혀 생각하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특별대담 ▲하벨 다이얼로그 ▲라운드테이블 ▲시민사회·학생 기념행사 ▲콜로키엄 ▲청년 평화포럼이 있다.

특별대담에는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나오미 오레스케스 하버드 대학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 대 석좌교수가 참석한다. 이들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특별대담

로 다시 만난다. 김 원장은 “5년 사이에 일어난 일 중 좋은 일보다 걱정되는 일들이 더 많았다”며 “이번에 세 분이 모여 5년간 일어났던 일과 앞으로 5년 후의 일, 어떻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이야기 나눌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벨 다이얼로그에는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신입관장, 마틴 리터 체코고등학술원 철학연구소 부소장, 박영신 전 경희학원 고황석좌 교수, 신진숙 미래문명원 부원장이 ‘시민적 가치와 참여, 하벨 정신의 재조명’에 대해 대화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하벨 다이얼로그는 2015년에 하벨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추서하고 원탁회의를 개최한 후 10년 만

에 하벨을 재조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라운드테이블은 The Elders, 폴 슈리바스타바 로마클럽 공동회장, 조르지 스자보 전 라즐로 연구소 소장,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관장, 요코이 아츠푸미 오카야마 대학교 부총장, 천 즈민 푸단대학교 부총장이 참석해 ‘돌과 혹은 봉과: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항배’를 논의한다.

이번 PBF는 지난해보다 학생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학생은 19일 행사에서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으며 20일에 열리는 콜로키엄에서는 패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세계평화주간 동안 진행되는 미원평화상 제정 기념 솟품

공모전, 청년 평화 포럼, 지구시민 부스 등의 프로그램에 학생들과 일반시민까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김 원장은 “올해 PBF는 앞으로의 45회, 50회를 바라보며 출발을 되새기는 행사가 될 것이다”며 “내년에 있을 제2회 미원평화상, 세계 시민 포럼(WCF), 세계 시민 청년 포럼(WCYF)의 후속 회의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행사로 올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성세대가 못 푼 문제를 미래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목소리와 힘을 더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학생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2년간 매달 50만원 기부한 전종득 명예교수

“삶을 풍요롭게 할 감수성 잃지 않길”

최단 기자 dan2530@khu.ac.kr

수학과 전종득(해석학) 명예교수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50만 원을 수학과 장학금으로 기부해 왔다. 30년 넘게 이어진 꾸준한 나눔에는 제자와 후학을 향한 그의 마음이 담겨 있다. 우리신문은 전 교수를 만나 기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가 후학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30년 동안 이어진 기부 “학생한테 조금이라도 보탬됐으면”

전 교수의 기부는 1993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로 32년째다. 매달 50만 원씩 우리학교 수학과 장학금으로 내놓으며 지금까지 30년 넘게 그 약속을 지켜왔다. 전 교수는 이러한 결심의 배경에 자신의 학창 시절을 떠올렸다.

“중학교 때부터 줄곧 장학금을 받아 공부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공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늘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왔으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죠”라고 회상했다.

그 경험은 곧 기부로 이어졌다.



전 교수는 32년째 매달 50만 원을 수학과 장학금으로 기부해 왔다.

(사진=최단 기자)

그는 “매달 50만 원씩 장학금으로 내놓기 시작해서,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하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어”라고 말했다.

전 교수의 나눔은 우리학교에만 머물지 않는다. 매달 유니세프에 5만 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3만 원을 정기 후원하며 국내외 아동들을 돕는 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 교수는 종신 기부를 약정해 앞으로도 장학금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아들 또한 우리학교로의 기부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더하며 나눔을 한 세대 넘게 잇고 있다. 전 교수와 사모님은 우리학교 의과대학병원에 시신 기증을 서약해 마지막까지 학교와 사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했다.

묵묵히 지켜본 제자들의 발자취

전 교수는 기부의 보람을 학생들과의 소소한 연결에서 찾는다. “가끔 졸업한 학생들이 내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걸어오곤 하고, 또 장학금 수혜 학생 발대식에 초대받기도 해요. 저는 직접 가지는 않지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부가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구나’ 느껴요”라며 감회를 전했다. 전 교수의 목소리에는 앞에 나서기보단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려는 교육자의 태도가 묻어 있었다.

가르쳤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다. 전 교수는 “내가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이 경희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부한 뒤, 다시 경희대 교수로 돌아왔어요. 제자가 동료로 부임했을 때 그만큼 뿌듯한 순간도 없었죠”라고 회상했다.

후학들에게 전하는 낭만 “여유와 낭만을 잃지 않길”

후학들에게 전 교수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덕목은 ‘성실’이다. “성실히 살면 기회가 옵니다. 저도 덕성여고 교사로 시작했을 때는 교수가 될 줄 몰랐습니다”라고 전했다.

학문적 성취뿐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조언을 건넸다. “낭만 있게 살아라”는 말속에는 평생 간직해 온 철학이 담겨 있다. 여전히 문학 전집을 즐겨 읽는 전 교수는 “수학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이과적 사고에 머문 게 아니라, 문학 같은 학문에도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에게 성실과 낭만은 결국 같은 맥락이었다. 흔들림 없이 학문을 이어가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수성을 잃지 않는 것. 전 교수는 “후학들이 성실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유와 낭만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6 기획



양여진

해남이 본가인 임하윤(아동가족학 2023) 씨는 상경 초기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마음 나눌 사람의 부재'를 꼽았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삶은 예상보다 고단하다. 우리신문은 음식, 소비, 심리, 주거 등 분야별로 나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1인 가구 1,000만 시대 도래 외로움 · 불안 · 밥상의 무게

하시연 기자 hse0622@khu.ac.kr

6평(약 19.8㎡) 남짓 직사각형 방 안. 충청남도 홍성에서 상경해 서울 이문동에 정착한 신유빈(미디어학 2024) 씨는 지난 5월부터 이곳에서 먹고 자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자취 시작한 지 한 달간 살이 엄청 쪼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외로운 걸 먹는 거로 달랬던 것 같아요." 입학 2년 만에 부모의 품을 떠나 처음으로 1인 가구 생활을 시작한 신 씨는 초반에는 설렘보다 낯섦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했다.

1인 가구는 더 이상 특이한 생활 방식이 아니다. '2025 행정안전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이는 3~4인 가구를 합한 수보다 많은 수치다.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이제 한국 사회의 중심축이자 평균값으로 자리 잡았다. 1인 가구의 삶을 이해하는 일은 곧, 오늘날 우

리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고민 털어놓을 상대 없어” 정서적 외로움 자주 마주하기도

그들의 삶은 예상보다 고단하다. 특히 청년층 1인 가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제는 정서적 외로움이다. 2023년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에서 상시 외로움을 느꼈다는 응답은 24%로, 2인 이상 가구 수치인 18%보다도 높다.

해남이 본가인 임하윤(아동가족학 2023) 씨는 상경 초기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마음 나눌 사람의 부재'를 꼽았다. "서울로 대학을 온 동향 친구들이 몇 명 있긴 했지만, 다들 각자의 생활이 있으니, 제가 외롭거나 힘든 걸 말하긴 어렵더라고요." 그는 고민을 꺼낼 상대가 없어 마음을 달랠 날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복수전공을 위해 서울캠 인

근에서 자취를 시작한 장정윤(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3) 씨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원래는 국제캠에서 친구들과 붙어 다녔는데, 서울캠에 오니 평일이든 주말이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수업 끝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청년 1인 가구는 심리적 어려움과 정서적 단절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2년 서울시가 발

표한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62.1%가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답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홀로 식사하고, 혼자 잠들고, 누구의 눈길도 마주치지 않은 채 하루를 끝내는 삶은 때로 조용한 무게로 다가온다.

“한 끼를 때운다는 느낌 강해” 간편함 · 효율성 식사 택해

삶의 리듬이 무너지는 순간엔 '식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자취 2년 차에 접어든 맹보영(무역학 2022) 씨는 "처음에는 요리를 해먹기도 했지만, 식재료가 너무 많이 남기도 하고 요리할 공간이 부족해 요즘은 거의 배달로 해결해요. 한 끼를 맛있게 먹는다는 느낌보단 그냥 때운다는 느낌이 강하죠"라고 말했다.

2022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월평균 외식 및 배달 지출액은 약 26만 원으로, 2인 가구보다 9% 이상 더 높다. 이는 단순히 요리하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1인 가구가 구조적으로 간편함과 효율성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반찬 하나를 사도 양이 많아 남기기 일쑤고 식자재를 사면 유통기한 전에 버리게 되는 일이 잦다.

신유빈 씨는 자취 후 건강의 변화를 체감하게 됐다고 말한다. "배달을 시켜 먹으면 밀가루가 많은 메뉴만 먹게 돼요.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도 느끼고, 소화가 안 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는 주말마다 간편식이나 냉동식품으로 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혼밥'은 단지 식습관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일상의 균형이 흔들리는 시작점이며, 정서적 고립감을 더욱 강화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향후 시리즈에서는 '1인 가구는 어떻게 먹는가'를 통해 이들의 식생활과 그 이면의 정서를 함께 조명할 예정이다.

“월세 부담에 막막” 치안 문제도 고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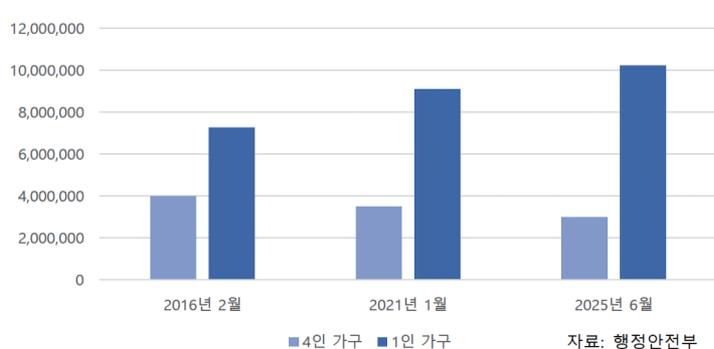
자취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는 주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년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9.4%를 차지하며, 청년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56.9%로 가장 높다. 주거 형태는 대부분 원룸, 반지하, 고시원 등 소형 주택에 집중돼 있고, 환기와 단열, 방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맹 씨는 "늦은 밤에 어떤 사람이 집을 착각해 집 비밀번호를 눌렀던 적이 있었다"며 자신이 특이나 치안 문제에 예민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족과 살 때는 위협을 느낀 적이 없는데 혼자 사니 밖에서 큰 소리만 나도 무섭다"며 "자취방 특성상 보안에 취약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비용 측면도 빼놓을 수 없다. 신 씨는 향후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부모님이 도와주시지만, 졸업하고 월세랑 생활비를 제 월급으로 모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죠."

1인 가구는 더 이상 주변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거나, 앞으로 마주하게 될 보편적 삶의 한 방식이 되었다. 이에 우리신문은 1인 가구의 다양한 삶의 양상을 조명하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음식, 소비, 심리, 주거 등 분야별로 나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 속에는 어떤 고민과 선택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4인 가구와 1인 가구 수 변화



'2025 행정안전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섰다.

회기동 상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조명 · 간판 교체 등 시설 개선 예정

오승현 기자 dirk0212@khu.ac.kr
최단 기자 dan2530@khu.ac.kr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지난 5일, 학교 인근 회기역 파전 골목은 트로트 공연으로 떠들썩했다. 파전 골목 ‘고향왕파전’ 앞 메인 무대가 설치됐고, 골목 안쪽에 파전·막걸리 시식부스와 전통문화 체험부스가 방문객들을 반겼다. 파전 골목이 이렇게 시끌벅적한 데엔 휘경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서울시 골목상권 행사 지원 사업의 영향이 컸다.

지난 5일 동대문구 주위의 ‘제1회 회기 파전 가요제’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을 부른 우리학교 정동현(정치외교학 2023) 씨는 남녀노소 익숙한 트로트 곡을 불러 1등을 차지했다. 2, 3등은 각각 지역 주민인 최정남 씨와 박명환 씨가 이름을 올렸다. 정 씨는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트로트를 참가곡으로 골랐다”며 “관객분들이 호응을 잘해주셔서 더 완성도 높은 무대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 씨 무대 중 관객들이 무대 앞까지 나와 다 같이 춤을 추며 열렬한 환호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회기역 골목상권에 활력이 돌게 된 데에는 지난 7월 정부가 동대문구 회기동 일부 사업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있다.

가요제는 서울시 골목상권 행사



지난 7월 정부가 동대문구 회기동 일부 사업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사진=최단 기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회기동 상권 구역이다. (사진=네이버 지도 캡처본)

지원 사업에 선정된 네 개 축제 중 첫 무대였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 시장뿐 아니라 생활 밀착형 상권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 개선, 공동 마케팅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단기 소비 촉진을 초점을 맞춘 지난 ‘민생회복쿠폰’ 정책과 달리, 골목형 상점가는 경영 지원과 환경 개선을 병행해 상권의 장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광주 서구는 올해 6월 30일 자치구 전역(119개소, 약 1만 1,400여 점포)을 전국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 상인 매출이 20~3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회기동 상권 역시 변화가 기대된다. 회기동은 대학가에 형성된 상점 밀집 구역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 청년층 업종이 주를 이룬다. 상권분석 서비스 ‘오픈업’에 따르면 전체 점포의 절반 이상(52.2%)이 외식업으로 구성돼 음식·카페 중심 구조가 뚜렷하다. 주거 인구에서 20대 비중이 18.1%로 가장 높고, 유동 인구 역시 20대가 25.9%를 차지해 대학가 특유의 청년층 기반 소비 특성

을 보인다.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유찬형 주무관은 “학생과 주민 생활권이 겹쳐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은 경희대길 골목형 상점가(경희대 정문 앞 오른쪽 구간)를 중심으로 완료됐다.

쌔웃다타이·키친요로시쿠·따계리 라 비다·녹원 네 곳은 앵커 스토어(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거점 점포)로 선정돼 시설 개선과 브랜딩 지원을 받는다.

찾집 녹원은 “청년문화의 허브로 회기랑길을 대표하고 싶어 지원했다”며 “현재 컨설팅을 통해 운영과 홍보 전략을 재정비 중이며, 시설 지원이 이어지면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앵커 스토어 선정은 각 점포의 신청을 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유 주무관은 “순차적으로 외부 조명·간판 교체, 바닥 포장 등 시설 개선은 예산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른 지역 상인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학교 정문 앞 모닝글로리 점주는 “상권 지정이 매장 운영에도 힘이 될 것 같다”며 “특히 조명이 밝아지면 저녁에도 손님들이 안전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청은 추후 학교 정문 앞 전체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

8 문화

건강과 즐거움을 한 번에 잡다, '헬시 플레저' 열풍

조한음 기자 jhn0102114@khu.ac.kr

문화트렌드 연속 기획

- ① 야구장으로 향하는 20대
- ② '헬시 플레저' 트렌드 속 건강한 식문화를 즐기는 20대

우리신문은 청년·학생의 문화트렌드를 반영한 기사를 연재한다. 두 번째 순서로, '헬시 플레저'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변화한 청년층의 식문화를 살펴본다. 2000년대 초반 '웰빙(well-being)' 열풍은 유기농과 슬로푸드를 앞세우며 건강에 해로운 식품은 철저히 배제하는 소비문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건강을 챙기면서도 맛과 재미를 놓치지 않는 헬시 플레저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 흐름은 대학생들의 식생활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헬시 플레저 열풍

쿵스켓, 관련 제품 판매량 두 배 증가

국내 식품업계에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기는 '헬시 플레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웹시 제로슈거'는 출시 4년 만에 국내 누적 판매량 약 17억 캔을 돌파했다. 대표적인 고칼로리 음식인 떡볶이도 저당 열풍에 합류했다. 엽기 떡볶이는 9일 전국 매장에서 '저당 엽기떡볶이'를 선보여 다이어터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교내 편의점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두드러진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쿵스켓(이마트24와 대학생협이 함께하는 편의점 브랜드)' 제품 판매량 상위 100위를 분석한 결과, 제로·단백질 음료 판매량은 2022년 8%에서 지난해 16%로 3년 사이 두 배가 늘었다. 생협 정광수 판매사업팀장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헬시 플레저 관련 상품 진열 공간을 별도로 편성했다"며 "헬시 플레저 관련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적극적으입고하는 등 매장 운영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식 전문 프랜차이즈도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샐러드와 포케를 앞세운 브랜드들이 가맹점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마이프랜차이즈' 공식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샐러드 브랜드 '샐러디'는 2016년 9개 가맹점으로 시작해 2025년 8월 기준 341개로 늘어나, 연평균 약 36개씩 증가했다. 포케 전문 브랜드 '포케올데이'도 2021년

39개에서 2025년 7월 155개로 확대돼, 연평균 약 29개 매장이 문을 연 셈이다. 회기동 경희대로와 회기로 사이에는 '프레퍼스', '샐러디', '그린브로스' 등 8곳이, 영통3동 청명로와 매영로 사이에는 '아토키토', '포케올데이', '헬린이식당' 등 6곳이 2022년 이후 새로 문을 열었다. 영통에서 다이어트 음식점 '헬키푸키'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한 씨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올해 4월 매장을 열게 됐다"며 "주요 고객층은 20대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헬시 플레저 열풍이 단순한 칼로리 제한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채소·과일 섭취부족한 1인 가구 헬시 플레저 음식으로 영양보충

학생들은 간편하게 영양을 채우기 위해 헬시 플레저 음식을 찾는다. 교내 편의점을 방문한 김승규(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 2025) 씨는 단백질 음료를 찾았다. 그는 "간단하게 식사로 때우기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 먹는다"며 "단백질 음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몸에 좋아 자주 찾게 된다"고 구매 이유를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400g 이상의 채소·과일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1인 가구의 채소·과일 섭취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진행한 '서울시민 식생활 실태 분석과 식생활 정책방향 보고서(2024)'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과일 및 채소 1일 500g 이상 섭취 비율은 ▲1인 29.3% ▲2인 39.3% ▲3인 40.7% ▲4인 이상 39.5%로 나타났다.

이렇듯 채소와 과일 섭취가 부족한 1인 가구 학생들에게 헬시 플레



'고단백 저당 모닝빵' 등 헬시 플레저 음식이 인기다.(위) 회기동 '제로 스토어'는 젊은 손님들로 가득했다.(아래) (사진=이환희 기자)

저 음식은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건강을 보완할 수 있는 선택지다. 서울캠 후면에 위치한 샐러드 가게 '몬스터플레이스'를 방문한 한국의대 전유호(ELLT학 2021) 학생은 점심 메뉴로 샐러드를 골랐다. 그는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맛있고 가까워서 일주일에 2~3회 찾아온다"며 "자취를 하다 보면 채소를 먹기 힘들어서 의식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다채로운 맛과 색깔 커스터마이징으로 취향대로 즐겨

커스터마이징으로 매번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으면서 동시에 SNS에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

다는 점도 헬시 플레저의 매력이다. 평소 건강식을 즐기는 손윤서(응용영어통번역학 2025) 씨는 "원하는 토핑을 골라 넣을 수 있어 매번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며 "SNS에 사진 올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 색깔이 예쁜 포케와 샐러드를 찾는다"고 전했다.

포케와 샐러드는 과거 다이어트나 헬스 목적의 제한된 소비층만 찾던 건강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일반식으로 자리 잡으며 외식업계에서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헬시 플레저 음식은 본인의 취향에 맞춰 재료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요소와 결합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청년층의 헬시 플레저 열풍에 대

해 '헬스커뮤니케이션'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조수영(언론홍보학) 교수는 "지난 몇 년간 먹방과 맛집 탐방의 유행으로 청년들의 자극적인 음식 섭취와 성인병이 우려됐지만, 최근 다이어트와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다만 이러한 식문화가 단순히 음식이나 칼로리 제한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시 플레저 식문화는 학생들의 일상 속에서 맛과 건강, 편리함과 개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헬시 플레저 음식은 대학이 식문화에 중요한 축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흙으로 이어진 과거와 현재 도예학과 재학생-동문 공동 전시회

조한음 기자 jhn0102114@khu.ac.kr

【국제】 도예학과 동문과 재학생이 도자기 작품으로 한 공간에 모인 전시를 선보였다. '도자기 그룹 형(形)'의 40주년 기념전과 도예학과 과제전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예술디자인대학관 A&D 갤러리에서 공동으로 열렸다.

도자기 그룹 형(形)은 도예학과 81학번 여성 동문 5명의 주도하에 1985년 결성된 모임이다. 창립 멤버 5인은 지금까지 총 스물네 번의 회원전을 개최하며 열정과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여성 도예인은 출산과 육아, 경력 단절, 경제적 문제로 현실의 장벽을 마주해야 했다. 형 그룹은 어려움에 부딪힌 도예학과 후배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들을 격려하며, 언젠가 예술가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형 그룹은 모교인 우리학교에서 기념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재학생 작품을 선보이는 도예학과 과제전과 공동 개



'도자기 그룹 형(形)'의 40주년 기념전과 도예학과 과제전이 예술디자인대학관 A&D 갤러리에서 공동으로 열렸다. (사진=조한음 기자)

최하기로 한 점도 더욱 뜻깊다. 전시는 평소 형 그룹과 교류를 이어온 김승욱(도예학) 교수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학생회와 여성동문회의 협력을 통해 전시가 마련됐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18명의 회원

이 참여해 각자의 개성과 예술적 여정을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는 '우리였던 순간들'이라는 주제 아래 가족, 친구, 집 등 개인의 소중한 추억과 관계를 도자기 작품 속에 녹여냈다. 고전적인 미감과 함

께 삶의 다채로운 흔적들을 고스란히 담아내 관람객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전시에 참여한 이보미(도예학 2003) 씨는 "이번 전시가 40주년의 의미도 있지만, 후배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뜻깊고, 초심을 찾는 기분이 들었다"며 "후배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배움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누리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념전과 공동 개최하면서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도예학과 과제전은 재학생의 창작 역량과 예술 비전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작품들에 담긴 저마다의 개성과 노고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관람객 한서는(디지털콘텐츠학 2025) 씨는 "예술디자인대학 통합 전시회에서 도예 작품을 본 경험이 인상 깊어, 이번에도 관심을 가지고 방문했다"며, "평면 디자인과 달리, 도예 작품은 실제 형태로 존재해 보는 즐거움이 있다"는 감상을 전했다.

전시기획을 맡은 고찬란(도예학 2023) 씨는 "이번 전시를 통해 동문 선배님들의 작업 세계를 직접 접하며, 도예가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귀감이 됐다"며, "선배님들의 작품과 나란히 놓임으로써 도예학과 의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형 그룹 대표 이은주(도예학 2001) 씨는 "앞으로 후배 도예인들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마주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선배들의 발자취 속에서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필화 넘어 살아남은 창학 정신 『문화세계의 창조』

이금화(경희기록관)

경희의유산②『문화세계의 창조』

경희의 창학정신이 정초된 책 『문화세계의 창조』는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의 두 번째 저서다. 책의 원고를 탈고한 1951년 5월 18일은 그가 경희의 전신인 신흥초급대학을 인수한 날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6월 30일 초판본이 출간됐다.

한국전쟁의 한복판에서, 더욱이 화재로 부산 동광동 교사가 전소되면서 대학의 자료들과 함께 이 초판본도 대부분 유실됐는데, 설상가상으로 뒤에 언급될 필화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 모두 사라져 버렸다. 그러던 것을 2014년 경희기록관장 김희찬 교수가 전국의 헌책방을 수소문해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 책 표지에는 유엔 마크와 함께 푸른빛이 선명한 지구가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이 표지가 그려진 1951년 당

시에는 아무도 우주에 나가 본 사람이 없었고, 당연히 지구의 색깔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푸른 지구는 저자 조영식 박사의 상상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시대, 닫힌 이념과 편견의 장벽을 넘어 인간의 인간적인 세상, '문화세계'를 열어가자는 것이 『문화세계의 창조』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 책이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소위 불온사상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1955년 7월, 당시 총장이던 조영식 박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대학을 찬탈하려는 몇몇 이사와 교수들의 음모로 벌어진 일이었다.

조 총장의 구속 소식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들이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대학 사회는 물론 학계와 정부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수사당국은 정치, 철학 분야 이름 있는 학자들에게 의뢰해 책의 내용을 검토하게 했다. 문교부도 학술원에 정식



경희의 창학정신이 정초된 책 『문화세계의 창조』 책이다. (좌) 경희기록관장 김희찬 교수가 헌책방을 수소문해 입수한 책으로, 현재 경희기록관에 있다. (우)

으로 내용 감정을 위탁했다. 그 결과 이 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1956년 6월, 조 총장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다.

이 사건은 대학은 물론 조 총장 개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이를 계기로 경희는 구성원 모두의 결속을 더욱 강화해 개교 10주년을 향해 다시 한번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바뀌었다.

『문화세계의 창조』는 "새로운



경희의 창학정신이 정초된 책 『문화세계의 창조』 책이다. (좌) 경희기록관장 김희찬 교수가 헌책방을 수소문해 입수한 책으로, 현재 경희기록관에 있다. (우)

세기는 새로운 정치 이념을 필요로 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정치인이 사용할 법한 문구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대립과 폭력, 무고한 살상을 불사하는 현실정치가 아니라 평화로운 인간의 인간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삶의 정치, 지구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간의 양심과 이성에 귀 기울이고, 이웃과 사회, 세계,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전일적 시민성을 저자는 강조한다.

책이 세상에 나온 지 74년이 지났다.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문명의 위기 징후들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다. 책의 서문이 말하듯, "세계는 지금 조난당한 난파선!...묘안과 창의적인 방안을 찾지 않는 한 침몰은 막을 수 없다." 이 책을 관통하는 저자의 메시지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세계는 결국 우리의 의식과 인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의식 세계가 현실을 만들고, 인간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보편과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열린 마음. 그런 '인간적인 문제의식'을 갖는 것에서부터 인류와 문명의 살길, '문화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저자의 호소에 귀 기울일 때다.

10 스포츠

핸드볼부 대학선수권 준우승 10월 전국체전 좋은 성적 다짐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국제】핸드볼부가 경상남도 고성에서 열린 '2025 전국대학핸드볼 통합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했다.

핸드볼부는 지난 9일 원광대와 결승전에선 대회 3연속 우승에 도전했지만, 합계 스코어 36-39로 패했다. 핸드볼부는 대회 조별리그에서 강원대전 34-35로 패배, 조선대전 48-27로 승리한 뒤 4강에선 라이벌 한국체대를 22-21로 꺾었다.

결승전에서 핸드볼부는 전반은 24-19로 앞섰지만, 후반에 12-20

으로 8점을 뒤지면서 역전을 허용했다. 특히, 후반에 5연속 실점을 하는 등 후반 15분까지 4-12로 상대에게 경기 흐름을 내줬던 것이 패인이었다.

라이트백 이민준(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고 소감을 남겼다. 이어 "항상 우승을 해와서 방심했던 것 같다"며 "패배 이후에는 배우는 게 있으니, 이 아쉬움이 다음 대회에선 간절함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팀의 주장이자 센터백인 나의찬(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는 대회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나 선수는 "개인상을 받았지만 솔직히

기쁘지 않다"며 "입학 이후 가장 아쉬운 대회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점수 차가 커도 충분히 역전당할 수 있고, 방심하면 언제든지 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핸드볼부는 오는 10월에 실업팀과 대학팀이 모두 참여하는 대회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위해 부산으로 떠난다. 선수들이 이전부터 "실업팀에 1승을 하는 게 큰 목표"라고 입을 모아 온 만큼 실업팀과의 경기는 또 다른 도전이다. 이 선수는 "그 목표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간절하게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며 "준비한 모든 것을 쏟기 위해 마음가짐부터 다시 잡겠다"고 말했다.

새내기 'BMX 레이서' "내년 아시안게임 출전 목표"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BMX 선수 김어진 (스포츠지도학 2025)

경기장에서의 환호 뒤에는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신문은 체육부 선수들을 직접 만나 그 목소리를 담아 내려 한다. 성적과 기록뿐만 아니라, 종목을 향한 열정과 선수로서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독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 세 번째 주인공으로, BMX 레이싱 국가대표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새내기 김어진(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를 만났다.



김 선수는 내년 아시안게임 출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김어진 선수 제공)

가 큰 부담이라고 한다.

성적 부담은 언제나 스트레스다. 김 선수는 "1등을 위해 운동하는데, 겨우 3등을 하거나 경기 중에 넘어져서 속상할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격렬한 종목이기 때문에 부상 위험 역시 크다. 수술 자국을 보여주며 "오른쪽 팔에 금이 갔었고, 왼쪽 팔은 부러졌었다"며 "부상 직후엔 그 장면이 떠올라 힘들었지만, 이제는 다 극복했다"고 말했다.

그래도 김 선수는 매주 자전거에 오른다. 그는 "금메달을 따면 너무 짜릿하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못하던 기술을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이 크다"고 말했다. 우승한 순간이 얼마나 기쁘지 묻자, 그는 "시험에서 다 찍었는데도 100점 받은 기분과 같다"며 웃었다.

목표는 '2026 아시안게임' 은퇴 후엔 선수 양성이 꿈

국가대표는 한 해 동안 3번의 평가전을 한 뒤, 성적을 합산해 2명이 선발된다. 평가전에선 타임 트라이얼(혼자 달려 트랙을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과 레이싱 경기를 치른다. 김 선수는 지난달 31일 양양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평가전에서 2위를 했지만, 합산 3위로 국가대표가 되진 못했다. 다만 중요한 건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내년 평가전이라고 한다. 김 선수는 "내년에 열리는 두 번의 평가전에서 계속 1위를 해서 아시안게임에 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김 선수는 "은퇴 후에 코치 일을 꼭 해보고 싶다"며 "지금 팀에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가끔 가르쳐 보면 꽤 즐겁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키운 선수가 메달을 따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BMX가 유명해지려면 스타가 등장해야 한다"고 말한 그가 BMX계의 새로운 스타가 되길 바란다.

자전거로 휴 위 질주 'BMX 레이싱' 국대 평가전 1위로 우리학교 입학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종목 'BMX (Bicycle Motocross) 레이싱'은 트랙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경기로, 여러 언덕과 급회전 코너를 주행해 순위를 매긴다. 30~40초 만에 경기가 끝나는 짧고 강렬한 종목이다. 김 선수는 "속도를 위해 브레이크가 뒷바퀴에 하나뿐이지만 그 조차도 거의 쓸 일이 없다"고 한다.

김 선수는 1학년이지만 BMX 경력은 무려 10년이다. 그는 초등학교 때 친구와 놀며 BMX를 처음 접했다고 한다. 그는 "초등학교 때 취미로 가볍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만큼 재밌는 종목이 없었다"며 "성인 선수 시합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에 꿈이 커졌다"고 회상했다.

BMX 선수가 갈 수 있는 국내대학은 우리학교와 한국체대뿐이다. 여러 수상 실적 중 특히 '2023 KCF YOUTH CUP', '2023 양양 전국선수권대회', '2024 국가대표 평가전 1차 타임 트라이얼'에서 1위를 차지해 우리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국내 훈련장 세 곳 열악한 환경 스트레스와 부상에도 꾸준한 노력

우리나라는 BMX 인프라가 열악한 편이다. 실업팀이 없고, 훈련장은 전국에 세 곳(강원도 양양, 인천 강화도, 세종시)뿐이다. 김 선수는 현재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데,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부터

ROTC

그 자체가 스펙이다

리더십, 체력, 해외연수 등 육각형 인재의 완성

모집기간

: 2025. 9. 1(월) ~ 2025. 10.14(화)

모집대상

: 남녀 1, 2학년 재학생

지원방법

: acq.armyofficer.mil.kr

문의

: 경희대 학군단 02) 961-0085~6

모바일홍보



지원서접수



오피니언

11

사설

중앙박물관 누수,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우리학교 중앙도서관 4층에 누수가 발생했다. 지난 8월부터 노후화된 방수층 교체를 위한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도중 발생한 호우로 피해를 입었다. 해당 층에는 중앙박물관과 경희기록관이 위치해 있어 유물과 기록자료의 보존 측면에서 우려된다.

누수를 인지한 이후 중앙도서관은 4층 중앙박물관과 경희기록관, 제4열람실 이용을 통제했다. 천장 텍스가 일부 젖어 떨어진 채 양동이와 비닐로 물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다. 비록 박물관과 기록관 측은 “중요한 유물 등은 미리 안전한 곳에 옮겨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물이 새는 복도 한가운데 양동이가 놓인 모습을 미루어 보건대, 과연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열람실에까지 미세하나마 누수가 발생했으니 말이다.

중앙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다. 우리학교 중앙박물관

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제1종 종합박물관으로, 학술 연구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전문 기관이다. 경희기록관 역시 학내 역사와 운영의 흐름을 기록하는 중요한 보존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상징적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유물은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려운 자산이다. 대학 구성원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문화·학술적 자산이 위협받는 것이다.

누수의 원인은 명확했다. 기존 방수층을 제거한 직후, 호우가 내렸고 마감되지 않은 옥상층을 통해 빗물이 내부로 유입됐다. 시기적으로 불가항력의 측면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사전 대비는 적절했는가’, ‘유관부서와 소통은 잘 이뤄졌는가’라는 의문은 지울 수 없다.

총무관리처장은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짚었다. 각 시설 관리자가 상이해 공지를 전달하는데

“

전반적인 시설 점검과 함께 사전 대비, 위험 예측, 소통 체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길 바란다.

”

한계가 있었으며 충분한 대면 소통이 부족했다고 했다. 공사 일정, 방식, 예상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을 미리 긴밀하게 공유하고 협의했다면 보다 적극적인 사전 대응

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도서관 측은 시험 기간에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정비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유관 부서 간의 협의 체계, 주요 시설 담당자와 공사 담당 부서의 협의 매뉴얼 마련 등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대형 공사의 경우 시설 이용자와의 대면 소통을 활성화해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이번 사고를 비단 중앙도서관에서 벌어진 일회성 사고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이미 몇 년간 교내 주요 건물에서 누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시설 점검과 함께 사전 대비, 위험 예측, 소통 체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길 바란다.

세시봉

슈렉당하지 않는 법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최근 영어권 MZ세대 사이에서 ‘슈렉킹(Shrekking)’이라는 새로운 연애평형이 화두에 올랐다. 외모가 덜 매력적인 사람과 의도적으로 연애하며, 상대방이 외모 콤플렉스를 보상하기 위해 더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슈렉 당했다(Getting Shreked)’는 비아냥거리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 용어는 2001년 개봉한 영화 ‘슈렉(Shrek)’에서 착안됐다. 영화 속 투박한 얼굴의 슈렉이 피오나 공주와 사랑에 빠져 외모로 인한 역경을 견디고 헌신하며 사랑을 쟁취한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외모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감정적 기대치가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겉모습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며 내면과 외면의 가치 판단 충돌 과정에서 ‘슈렉킹’ 현상이 탄생한 것이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외모는 능력이자’라는 말이 있듯, 외모를 가꾸는 행위 자체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하지만 외면의 가치가 내면의 가치까지 침범하게 두어선 안 될 일이다.

최근 국내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겉모습에 실망하고 스스로를 폄하하는 현상도 보인다. 대학경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 10개권 대학생의 93%가 ‘외모가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47%는 ‘자신의 외모가 인생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씁쓸한 현실이다.

국내에 성행하고 있는 사전 면접을 거쳐 외모기준을 통과해야 입장 가능한 주점이나, 외모가 매력적인 젊은 남녀가 등장하는 ‘솔로지옥’, ‘나는 솔로’ 같은 연애 프로그램의 흥행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스스로를 슈렉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외모지상주의를 더욱 키우는 건 남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꿈꿨던 숨어 있는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겠다. 때문에 슈렉 당하지 않는 마땅한 묘수란 없다. 다만 스스로가 슈렉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작은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슈렉이든도 괜찮다. 슈렉에게도 피오나 공주가 있지 않았나.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제휴 수익금에 대한 세칙 제정

명확한 세칙, 투명한 재정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도 업체의 지원금은 제휴 계약을 진행한 회장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단과대 학생회’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적인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학생 자치 임원의 인식이 투명성에 대한 일반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례로 기록될 일이었다. 그 배경에는 관련 세칙의 부재가 있었고, 국제캠 중운위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한 제휴수익금 운용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관련 세칙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 같은 사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학생 자치 기구 임원의 공적 재정 운용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련 세칙 제정은 구성원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비밀 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보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체 학생회 수익금을 재정 구분 없이 결산하고 있는 문과대학 학생회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총학생회가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 운용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지켜보도록 하자.



만평 비밀 유지 조항에 가려진 제휴 수익금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장 하시언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엔피

12 인터뷰



술지게미를 활용한 디핑소스 '막요'를 개발한 정 씨는 "불닭소스처럼 해외까지 널리 사랑받는 제품으로 국위 선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서라수 기자)

버려진 술지게미 디핑소스로 만들었더니 캡스톤디자인 챔피언스리그 대상까지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지난 7월에 열린 '2025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챔피언스리그'에서 '요게미들' 팀이 대상을 받았다. 우수한 캡스톤프로젝트로 각 전공에서 선발된 팀 중, '요게미들' 팀은 막걸리 부산물 술지게미를 활용한 디핑소스 '막요'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막요'는 '막걸리 요거트'를 의미한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팀장 정재우(식품영양학 2019) 씨를 만나봤다.

캡스톤디자인은 졸업 논문을 쓰는 대신 사회 문제를 주제로 한 학기 동안 해결책을 찾아가는 대표적인 산학협력 교과목이고, 자유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난 대회는 희망자에 한해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대회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우연으로 모인 요게미들 각자의 강점으로 완성된 팀워크

'막요'를 만들어 대상을 받은 '요게미들' 팀은 5명 모두 식품영양학과 학생으로, 여느 강좌의 조별 활동처럼 우연으로 모이게 됐다. 팀원들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나눴다. 홍보에 관심이 있는 박수아(식품영양학 2021) 씨는 마케팅을,

분석력이 뛰어난 박예진(식품영양학 2021) 씨와 시장 조사를 잘하는 베트남 유학생 레마이두귀엔(식품영양학 2022) 씨는 자료 조사를 맡았다. 정윤(식품영양학 2021) 씨는 처음 구상했던 스프레드를 디핑소스로 바꾸며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구체화했다. 팀장인 정 씨는 평소 흥미롭게 여긴 막걸리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팀명은 이들이 개발한 제품 '막요'의 이름 후보 중 하나였던 지게미와 요거트를 합친 '요게미들'로 정해졌다.

제품 아이디어로, 약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술지게미에 주목했다. 정 씨는 "약주 제조 시 버려지는 술지게미 처리 비용이 연간 약 12억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접했다"고 말했다. "평소에도 취미로 직접 술을 빚으며 술지게미의 부피와 폐기량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남은 술지게미를 '업사이클링'을 통해 막걸리를 알리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전통주인 막걸리가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 그는 "부산물을 활용하면서 막걸리의 복합적인 향과 개성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푸드 업사이클링 활용 술지게미와 그릭 요거트의 만남

해당 아이디어를 술지게미와 그릭요거트가 결합된 '막걸리 맛 디핑

소스'로 구체화해 '막요'라는 제품을 만들었다. 요거트의 산미와 향이 막걸리의 고소함과 누룩향과 어우러지며, 기존 막걸리의 맛을 한층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게 했다. 국내 요거트 시장 성장세와 요거트에 대한 외국인의 친숙도 역시 고려했다. 정 씨는 "소주와 맥주를 즐겨 마시는 국내 20~30대 젊은 층과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을 주요 타겟으로 막걸리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막요'가 완성되기까지 우연한 발견도 있었다. 막걸리를 가만히 두면 하얀 침전물이 생기는데 정 씨는 이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하얀 부분만 추출하려면 막

은 부분을 걸러내야 했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중 팀원 정윤 씨의 "집에 굴러다니는 그릭요거트 메이커가 있다"는 말에 이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 씨가 집에서 술지게미를 분리해보니 침전물과 액체가 잘 나뉘었다. 이후 메이커로 직접 만든 그릭요거트를 맛보며 "처음 먹어봤는데 의외로 맛있다"며 놀랐고, 이어 "수용성 성분인 요거트를 막걸리 침전물에 섞으면 잘 섞이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우연한 발견이 '막요'의 출발점이 됐다.

하지만 개발 과정이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다. 개발 초기에는 젤처럼 퍼바르는 스프레드 형태로 만들 예정이었지만, 기름 성분이 많은 스프레드 특징상 막걸리와 잘 섞이지 않았다. 학부 수준에서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만드는 유화제를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일주일에 4개씩 약 10번 이상의 실험을 진행하면서 3주의 시간을 들였지만 실패했다. 그러던 중 앞서 시도했던 그릭요거트의 발견으로 "불닭소스처럼 소스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 소스로 가자"는 생각 끝에, 디핑소스 형태로 바꾸는 식으로 문제를 보완했다.

방향성을 바꾼 이후부터는 수월했다. 정 씨는 "스프레드 제형일 경우 버터 같은 기름 성분에 물과 친한 수용성 성분이 섞일 수 있도록

유화시켜야 하는데, 디핑소스는 이 과정을 생략해 가장 애먹고 있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팀은 이취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취란 재료에서 예상치 못한 향이나 맛이 나면서 음식의 풍미를 방해하는 냄새를 뜻한다.

술지게미와 요거트를 섞자, 원래는 느껴지지 않던 풀 향과 미묘한 토 냄새가 발견된 것이다. 정 씨는 "술지게미나 요거트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섞으니까 이상한 향이 났다"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실험을 진행했다.

2주간의 시도 끝에 설탕을 넣었을 때 발효가 더 활발해지고 기포가 생기는 현상까지 확인했고, 결국 설탕을 쓰지 않고 가열 살균을 선택해 발효를 억제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막요'를 맛과 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디핑소스 형태로 완성할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한 대상 "식품업계를 향한 꿈의 시작"

이번 경험을 통해 정 씨는 식품 개발이라는 직업적 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식품 개발을 실제로 해보니 어렵지만 재밌었다"며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식품 연구원이 되어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막요'가 나중에 출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불닭소스처럼 해외까지 널리 사랑받는 제품으로 국위 선양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 씨는 역대 수상작을 살펴보고 정보디스플레이학과나 약학과 학생들의 프로젝트가 학문적으로 전문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반면 '요게미들' 팀은 단순하게 막걸리 찌꺼기를 가열하고 혼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전문성이 부족해 보일까 우려했다. 캠퍼스타운사업단 심사단은 "푸드업사이클링을 사용한 것이 신선하다"는 점을 들어 팀의 대상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우수상만 받아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대상을 받아서 놀랐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이 애정하는 전통주 산업을 주제로 수상했다는 점에서 크게 만족했다.

후배들에게는 자신이 느낀 점을 반영해 전문성이 반드시 프로젝트의 우수성을 결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식품 전공의 무한한 가능성과 매력을 언급하며 도전해볼 것을 격려했다. 또한 제품 개발 과정에서 도움을 준 지도교수, 원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양조장 사장님, 조언을 준 대학원생, 팀원들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이어 "팀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고맙다"고 덧붙였다.



'막요'는 요거트의 산미와 향이 막걸리의 고소한 누룩향과 어우러지며, 기존 막걸리의 맛도 공존한다. (사진=서라수 기자)